

내가 본 수도원의 15년



Brian Park

개신교 수도원 수도회 창립 15주년을 맞아 멀리 캐나다에서나마 함께 축하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특별한 소명을 받으셔서 창립부터 오늘날까지 오로지 부여받은 소명, 즉 갈수록 혼탁해져 가는 영혼의 세계에 밝은 빛을 비추기 위해 혼신을 바쳐 사역하시는 초대 원장님 김창길 목사님과 현 원장님이신 에스더 목사님께 깊은 감사와 함께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저는 김 목사님께서 캐나다에서 교육 목사님으로 시무하시던 시절, 사춘기 어린 학생으로 처음 뵈었습니다. 제가 대학 진학후 목사님께서 뉴저지로 떠나셔서 30년 넘게 소식을 모르고 지내다가, 목사님께서 시무하시던 교회에서 은퇴하시고 수도원 사역을 시작하셨던 초기에 다시 뵈게 되었습니다. 뉴저지에 오셔서 교인 30여명 되는 교회를, 나중에 교회 가까운 곳에 한인 타운이 새로 형성될 정도로 성장시키시기까지 이른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30년 넘게 수고하셨던 육체적 멧가(?)인지 여러 알의 약을 드시는 모습을 보며 안스러워, 제 개인적으로 이젠 좀 편히 쉬셨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달라서 수도원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의 모습에는 새로운 에너지와 비전이 보였습니다.

제가 수도원에 처음 발을 딛게된 때는 식구들과 휴가차 뉴욕 지역에 왔다가 목사님께 들려서 인사드리고, 목사님께서 손수 운전하셔서 보여주신 나비박물관 2층의 수도원 경험이었습니다. 그후 여러 동역자, 사역자, 봉사자 분들의 헌신으로 수도원이 현 위치에 (Englewood) 자체 건물 구입후 여러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은혜스러웠고 기억이 새로운 순간은 저희 부부가 두 번에 걸쳐 참여한 수련회였습니다. 생전 처음보는 사이였지만 서로 서먹할 겨

를도 없이 첫 시간부터 저희는 웃음과 눈물 범벅이 되고 앉았니까요. 수도원에서 같이 생활하며 교회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찌릿한 감동의 시간들 -- 가슴 깊은 곳의 얘기를 나누고 서로에게 위로와 치유가 되었던 순간들, 그래서 지금도 그 분들의 모습(얼굴) 들이 뚜렷이 남아있고 그립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으시는 수련회 동기 분들이 계시면 이렇게라도 안부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수도원의 에덴 뜰에서 매년 드리는 수도원 창립 기념예배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은혜의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예배 준비를 위해 여러 형제 자매 봉사자들과 수도원 청소며 주위 정돈하는 수고는 물론, 김 목사님 내외분과 같이 보내는 시간이 너무 좋아 캐나다(토론토) 왕복 운전길이 지루한 줄 모르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특히, 멀리서 왔다며 앞다투어 저희를 식당이나 집에 초대하여 푸짐한 식사로 반겨주시고, 돌아가는 길 스낵까지 챙겨주시며 저희를 보내시는 마음들 -- 세상에선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저는 수도원에 올때마다 피보다 더 진한, 하나님께서 수도원을 통해 맺어주신 형제/자매애를 몸 속 깊이 경험합니다. 또한, 전날 밤새 일하고 주일이면 수도원 Chapel 에서 에스더 목사님의 인도하에 예배드리는 Filipino 간호사 형제 자매들과 가족처럼 친근해져 그들이 캐나다 방문했을때 저희 집에서 같이 차를 나누며 해후하는 은혜를 만끽했습니다. 이렇듯 저희에겐 수도원이 Channel of Blessing 입니다.

거리상 제가 올 수 있는 기회가 한정되어 주로 창립기념 예배 때에 와 보곤 하였지만, 올 때마다 주위 많은 분들의 헌신으로 수도원 모습이 변화되고 정돈되어 가는 모습이 은혜스러웠습니다. 수도원 에덴 가든이 기증받은 정원수와 아담

한 바윗돌들로 가지런히 정리되어 뒷편 대나무 숲과 기존의 크고 높은 나무들과 조화를 이루고, 뜰 한편 수도원 박물관에 귀중한 기독교 고품들이 전시되고, 오랜 건물 벽이 산뜻한 siding 으로 거듭나고, 특히 수도원 건물 주위로 김 목사님께서 손수 여러 과일나무와 꽃나무, 화초들을 골라 구입하시어 수도원 방문자들의 마음에 평안과 안식을 제공하시고 싶은 소중한 염원을 담아 곳곳에 식수, 배치하셔서 갈수록 더할 나위없이 아름다움이 더해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수도원에 가면 자연스레 한 줄기 풀이라도 더 뽑아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는 수도원 에덴 가든 경계로 뜰 밟기가 저에게 안식과 치유의 산책로가 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현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교회가 많이 기업(enterprise)-화 되어가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물론 현실적 필요에 따라 어쩌면 자연스런 흐름인지는 모르겠으나, 교회의 프로그램, 운영, 성장에 성과를 내는 학식, 경력, 재력등이 뒷받침 되는 능력자 우선주의가 보이고, 그러한 분들이 교회의 frontman 들이 되어서, 세상살이에 지치고 힘겨워 닳고 연약해진 심령들이 따스히 기대고 위로 받을 수 있는 사랑방에는 불빛이 약해져가는, 그래서 불편하지만 다 그러려니 하며 물어 사는데 익숙해야 되는 줄 알았지만, 개신교 수도원은 달랐습니다. 언제 어디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 달려가셔서 성경 말씀 그대로,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침으로, 위로하는 일이면 가슴으로, 축복하는 일이면 기쁨으로, 상담하는 일이면 진심으로, 애도하는 일이면 아픔으로... 손수 길잡이, 손잡이, 등반이가 되셔서 길을 나서심을 보았습니다. 수도원에 오셨던 분들의 배웅하시는 모습도 달랐습니다. 떠나시는 차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지기까지 문밖에 서서 그 분들을 보내심을 보았습니다.

지난 해는 (2025) 제 자신과 김 목사님 또한 "본토, 친척, 아버 집을 떠나" 미주 지역에 정착한지 50년, 그러니까 성경의 "희년" (Year of Jubilee) 이였습니다. 세월의 뚜렷한 흔적은 없지만, 처음 캐나다에 왔을때 까까머리 어린 학생으로 목사님은 저의 선생님, 부모와 같으셨지만 이젠 같은 노인연금 수령자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주위 부모 세대들께서 많이들 떠나셨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김 목사님을 건강히 지켜 주셔서 저와 같은 영적 "부양 가족" 들을 양

육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Saddle River 산책로를 여느 날처럼 기도하고 명상하며 걸으시는 목사님을 생각하며 적어 두었던 몇 줄의 시답잖은 글을 올려드립니다:


Saddle River 어른신

멀리 무서리 소리가 들리나 봅니다
봄부터 진초록 누비 누비 두르고
Saddle River 굽이 굽이 빼곡한 숲속엔
도토리나무 다람이들 분주해지고
채 물들지 않은 나뭇잎 마저도 서둘러 떨구니
새들도 등지를 떠나야 했나요

멀리 무서리 소리가 들리나 봅니다
벌써 보내기엔 너무 이른가요
오늘 아침도 유리창 뺨에 어린 눈물 방울을
채 다 추스려 훑치지 못하고
가슴 저리며 머뭇거린 자국
또 몇 밤을 지새워야 했나요

멀리 무서리 소리가 들리나 봅니다
까치발 가지 뺨어 Saddle River 물을 덮은 나뭇길
아침결이면 새 소리에 물힌 그 개울 따라
굽이가는 오솔길을 걸으며
다감한 미소로 인사하는 어른신
그 어른신 발걸음도 재촉했나요

멀리 무서리 소리가 들리나 봅니다
다 채우지도 못하고 저버린 햇살
어르신은 손수 등불 켜서 길잡이로 나서시고
다가오는 시린 손 덮석끌어 옷섬에 품으시는
그 어른신 옷깃에는 온기가 흐릅니다
그 어른신 가슴에는 주님이 보입니다

멀리 무서리 소리가 들리나 봅니다
그래도 문턱없는 어른신의 등지는 쉽지않아 좋습니다 

토론토대학교 Engineering Science 졸업
Computer Software Engineer (retired)
토론토 디모데교회 EM 장로
개신교 수도원 수도회 3대 이사장 (캐나다 거주)